

## 原子力界의 觸媒體로



임 창 생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한 국원자력산업회의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2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창립된지 어언 20년, 이제 「원산」은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가장 열기왕성하고 활동적인 때가 바로 20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산」은 또한 사람의 10대 후반에 해당하는 최근 몇해동안 많은 일을 해냈고 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아 양적인 성장은 물론 이에 걸맞는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산」은 100개에 육박하는 회원사와 200여 개인회원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원자력 유관기관의 중심점이 되는 협의체로서 손색이 없도록 발전한 것입니다. 회원사의 하나로서 다시 한번

「원산」 발전에 기여하신 많은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2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이었고 따라서 원자력 산업규모도 미미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뜻있는 분들이 모여 원자력계의 결속을 다지고, 원자력의 산업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발전과 국민복에 기여하고자 「원자력산업회의」를 발족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총전력의 반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고 원자력산업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막연한 불안감도 높아져 지금 원자력계의 최대 현안이 바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

해 증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원산」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바로 이 「국민이해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바 있지만 지금 원자력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굳게 결속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력기술이 갖는 특성상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산」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원자력계의 전체의 협력을 제고하고 결속을 다지는 일,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일, 훌륭한 기술요원을 훈련시키는 일, 여러 학술행사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일 등 「원산」이 해야 할 일은 많고, 임무 또한 막중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원산」 사무국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회원사의 회원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화학실험에서 「촉매」가 되는 물질은 어떤 반응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그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활성화시켜 주는 신비로운 작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 「원산」이야말로 이 「촉매」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일선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하는 「원자력의 촉매」로서,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모두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고리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